

① 전시장 입구에서 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② ③ 이번 전시회에는 동경제과학교와 일본과자전문학교 등 일본 제과학교 6개가 모인 스쿨 프라자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놀라운 맛과의 만남, 21세기를 향한 비상!

'99 모박쇼 르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99 모박쇼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23개국에서 245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예전에 비해 부스수가 대폭 줄어 전체적인 전시 규모는 축소되었다. '99 모박쇼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일본 제과제빵기술공업협회가 주최하는 일본 최대의 제과제빵관련 기기 및 원부재료 전시회인 '99 모박쇼(Machinery of Bakery and Confectionary Show)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23개국에서 245개 업체가 참가해 18개국에서 230개 업체가 참가한 97년 전시회보다 참가국과 업체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부스수는 지난 대회 1,418개보다 줄어든 1,322개로 집계돼 지난 대회에 비해 전체적인 전시 규모는 축소되었다.

기술상담코너, 스쿨 프라자 등 다양한 기획 마련
 '놀라운 맛과의 만남, 21세기를 향한 비상'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모박쇼는 제과제빵 관련 기기 및 원부재료는 물론 다양한 주방기와 식품 관련 설비 및 식자재 등 식품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 쿠시자와사가 선보인 독일식 가마. 이 업체는 이번 전시기간동안 독일식 가마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 베니에르사가 선보인 이동판매차량에 관람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특히 이번 모박쇼는 일본의 제과제빵 전문학교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하고 제품을 실연한 스쿨 프라자(school plaza)와 참가 업체에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 기술 상담을 벌인 제과제빵 기술 상담코너, 참가 업체 중 희망회사에 한해 자사 PR 및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모박쇼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획과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관련업체를 견학할 수 있는 관련업체 시찰 투어와 관련 전문 도서코너, PR 코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전시회보다 참가국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일제당이 부

스를 마련, 자사에 대한 홍보는 물론 쫄쫄쫄쫄한 식감의 모찌 빵 믹스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모박쇼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행사 안내 및 홍보는 미흡해 국제적인 전시회로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는 총 6만 1,182명이 참관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총 1,0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기 전시회는 2001년 2월, 오사카 인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계]

<글 / 김경옥>

데크오븐과 컨벡션 오븐을 하나로

(주) 썬지키카이 오다요꼬 대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일본의 제과기계 업체 (주) 썬지키카이는 듀얼오븐이라는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업체의 대표 오다요꼬를 만나 오븐의 특징에 대해 들어 보았다.

- 듀얼오븐이란

컨벡션 오븐과 데크오븐을 하나로 통합시킨 오븐이다. 오븐의 크기가 작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일반 제과점이나 베이커리 카페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 오븐의 특징은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작동 방법이 간단하다. 특히 전문 기술인이 아닌 초보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이 오븐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또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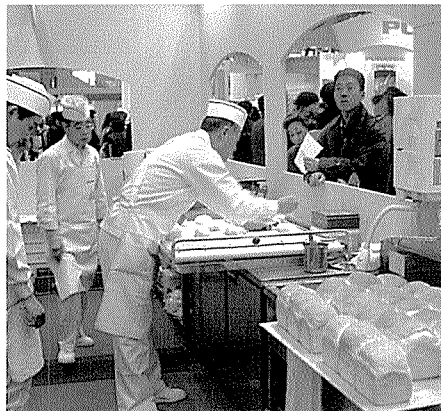
(주) 썬지키카이 오다요꼬 대표

제과기계

▼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한 제일제당. 쫄쫄쫄쫄한 식감의 모찌빵 빵믹스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이번 전시회는 실연코너를 마련해 현장에서 직접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업체가 많이 눈에 띄었다.



▼ 일본 최대 소도구전문업체인 요시오 부스 화려한 부스로 눈길을 끌었다.

